

## 창세기 여덟번째 메일

아브라함의 조카인 ‘룻’ 이 결국 아브라함을 떠났다.(창 13:14) ‘룻’ 의 아버지 ‘하란’ 이 젊은 나이에 일찍 죽자 ‘룻’ 은 큰아버지인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다.(11:28) 그리고 아브라함을 따라 함께 가나안으로 이주해 와서 살았다. 이민자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한평의 땅도 없이 다른 나라에 비집고 들어와서 결국 자신의 땅을 차지해야 하는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개척자’ 들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세월이 흐르면서 가족과 소유는 점점 늘어 갔는데 그것을 충족시킬 땅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였다. 이미 그 땅에는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기에 결국 비좁은 땅에서 친족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창 13:8)

‘룻’ 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된 근본적이유는 ‘땅’ 때문이었다. 당시에는 ‘룻’ 이 아브라함 곁을 떠난다는 것이 후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 올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룻’ 이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었을때 그 선택을 단호히 거절하고 아브라함 곁에 끝까지 붙어 있어야 했다. 그런데 ‘룻’ 이 바라본 요단 지역은 에덴동산과도 같았는데(13:10) 어찌 포기 할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그 기름진 땅 뒤에는 무시무시한 죄악이 성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어찌 알수 있었을까?. ‘룻’ 이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게 된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었다. 내가 보기에 ‘룻’ 은 마치 신약의 ‘탕자’ 처럼 아버지 곁을 떠나 먼 나라에 가서 모든 것을 잃고 ‘방랑자’ 가 된 것과도 같다. 그러나 ‘탕자’와 ‘룻’ 의 차이는 엄청났다. ‘탕자’는 결국 아버지 곁으로 돌아왔지만 ‘룻’ 은 끝내 아브라함 곁으로 돌아 오지 못하고 비극적 인생을 마쳤다. 도대체 ‘탕자’ 와 ‘룻’ 의 차이는 무엇일까? ‘룻’ 이 탕자처럼 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탕자는

‘스스로 돌이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 왔지만(눅 15:17-18) ‘룻’ 은 그 무시무시한 죄악의 도시 소돔에서 벗어나 아브라함 곁으로 스스로 돌아오지 못했다.(창 13:13)

‘돌아 온다는 것’ 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람이 아침에 집을 나가 저녁에 다시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 오듯이 인간은 어디론가 돌아 가게 되어 있다. 이것이 인간 생존의 법칙이다. 당신은 어떤가? 돌아 올 줄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돌아 갈 곳은 있는가? 당신이 아무리 멀리 하나님아버지 곁을 떠났다 할지라도 돌아 올 수 있다면 참 다행이다.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있었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13:18). 당신과 네가 돌아 가야 할 곳이 있다면 그곳은 어딘가? 당신이 무릎꿇고 주님의이름을 간절히 부를 수 있는 그곳이 당신이 돌아가야 할 곳이다. 그곳에서 당신의 영혼은 결코 찢어지지 않고 싸매어 진다. 아멘!